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6

마음 그릇을 크게 하라

[원문]

찰진심념가수지 (刹塵心念可數知)
대해중수가음진 (大海中水可飲盡)
허공가량풍가계 (虛空可量風可繫)
무능진설불공덕 (無能盡說佛功德)
-북한산 문수사 대웅전

[번역]

인간의 티끌 같은 마음을 다 헤아리고
저 넓은 바다의 물을 다 마신다고 해도
가히 허공도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뽀 수 있

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
은 다 말할 수 없네.

[선해(禪解)]

한 마디로 말해 불교는
마음 하나 잘 짓는 종교이다.
말하자면, 마음관리를
잘 해야 하는 종교이다.
이 마음 하나를 항상 청정
하게 잘 유지해야만 나날이 즐거워질 수가 있으며
또한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하나를 잘 짓
지 못해 오늘날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럴 때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마음을 잘 짓는 것일까?
인간이 중생과 다른 이유는 사회적 기능과 직관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직
관력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마음공부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마음이란 원
래부터 청정한 것이지만 사회 속으로 들어 올 때부
터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려워진 것도 마음속에 생긴 이 욕망을 제
대로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주련 여행의 주제는 '마음'에 있다.
문수사는 명산인 북한산 자락에 있는 천년 고찰이다.
고려 예종(1109년) 때 뛰어난 서예가로 알려진 신품
사현(神品四賢)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을 드날린 목
암 탄연에 의해 창건됐다.
당시 그는 이곳에 있는
암굴(暗窟)속에서 수도를 하던 중 문수보살을 목격
하고 문수암(文殊庵)이라는 암자를 지었다고 한다.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고성(固城) 문수사와 함께
한국의 문수보살 3대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불자들에게는 오백나한을 모시고 있는 나한도
랑으로도 유명하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나한전·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는데 대웅전의 문수보살상은 고종

의 비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조성한 것이고, 석가
모니불은 영진왕 이은(李垕)의 비인 이방자(李方
子) 여사가 조성했다.
이곳에 있는 문수봉은 전망
이 매우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목암 탄
연이 수행 한곳으로 알려진 문수천연동굴은 천연
의 암반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깊이가 30m가
넘는다.

문수봉에서 한눈에 보이는 북한산은 그야말로
비경(秘經)이다.
봄이면, 철쭉과 진달래꽃이 붉게
타오르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잎이 온 산을 불태운
다.
대남연 옆 깎아지른 절벽아래 아찔하게 서있는
문수사는 한 폭 풍경화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산불
이나 태풍 때문에 몇 번 소실의 위기를 맞기도 했
으며 그 명성만큼이나 한국사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다.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
가계'의 주련 내용은 인간이 티끌 같은 마음을 헤
아릴 수 있고, 또한 저 많은 바다 물을 다 마실 수
있으며, 허공도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뽀 수 있
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사람의 마
음을 알 수 없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으며 허공을
재지 못하며 부는 바람을 손으로 붙잡지도 못한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일까?
이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구법이다.

인간이 그런 위대한 것을 설명 이루었다고 하더
라도 즉, '무능진설불공덕' 부처님의 다할 없는 공
덕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뛰어난 비유라
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공덕은 그 어떤 어려운
것까지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경구(經句)라고 하
겠다.

인간의 마음은 그릇으
로 따지면 쓰기에 따라
작은 종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저 바다와 같이
넓을 수도 있다.
말하자
면, 지혜도 그 그릇이 커
야 제대로 담을 수가 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中
心)인데 어떤 마음의 그릇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만 부처를 멀리
서만 찾았다고 한다.
부귀나 명예, 쾌락 그런 것만
을 추구하다보면 진정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존재조차 까맣게 있어버
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을 위하
는 이헤심과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일찍이 부처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
든 선악과 기적은 다만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
다.
오늘날 경제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우울함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조계종 원로의원

우주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부처님의 공덕
지혜 키워 무량한 진리에 부합하는 사람이 '부처'

있는 곳이기도 하다.

4·19로 인해 실직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5.18
군사 쿠데타의 주인공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화
가 이곳에 숨어 있다.
이승만의 어머니는 여기 문
수동굴에서 백일기도를 드려 아들을 얻었으며 전
두환 대통령이 쓴 편액이 문수천연동굴의 입구에
걸려 있다.
이 두 대통령의 어두운 과거사가 아이
러니컬하게 녹아있는 것이다.
어떻게 북한산 꼭대
기 벼랑 끝에 마치 제비집처럼 걸려있는 문수사는
그 유래만큼 명성황후,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
는 비운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에 의해 중건된 대웅
전 안의 문수보살상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 주는 곳
으로 유명하여 많은 불자들이 찾는다.
원래 문수보
살은 지혜가 뛰어난 보살로서 석가가 돌아가신 후
인도에 태어나 '반야(般若)'의 도리를 선포하여 지
금도 반야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반
야경(般若經)>을 결집, 편찬한 보살로도 알려져 있
는데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비로자나불(毘盧遮
那佛)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서 보현보살(普賢菩
薩)과 더불어 삼존불(三尊佛)의 일원으로 실천적
구도자의 모습을 하고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는
다.
대웅전의 글씨는 몇 번의 소실 때문에 누가 썼
는지 모른다.

명성황후가 문수사에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이
유도 나라를 빼앗긴 우둔한 신하들에게 지혜를 가
르쳐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대웅전 주련의 내용
들도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을 예시하고 있어 문
수보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신는 본가는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명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6

마음은 안과 밖이 없다

[원문]

既不辨自白 憑何先生死 若見性即是佛 不見性即
是眾生 若離眾生性 別有佛性可得者 佛今在何處 即
眾生性 即是佛性也 性外無佛 佛即是性 除此性外 無
佛可得者 佛外無性可得.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이 의지하여 생사
를 면하겠느냐.
자성을 보면 부처이고 자성을 보지 못하
면 중생이니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
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
품이니라.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느니라.
부처가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성품을 얻을 수 없
느니라.



'달마 헤가 대면도'. 일본 목현(休閑)비록관 소장.

[해설]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
하겠느냐.'

이 말씀은 수행자가 정확
하게 어디에 마음자리를 두고
정진하는 것인지를 몰랐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자리를 떠난 생각은 모두 번뇌이고, 생
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진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야 합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을 믿고 거기에 마
음을 두고 화두를 들거나 또는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이전의 자리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할 때 깨달을 수 있습
니다.

'자성을 보면 부처이고 자성을 보지 못하면 중
생이니라.'

본래의 성품을 깨친다는 것은 문자나 언어로 표
현할 수가 없는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고 보면 쉬운 것이지만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한생각(一畵) 이전의 자리가 부처
였구나!
그 자리가 나의 본래 자리이고 우주의 근
본 자리였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견성했다고 이
야기 하는 겁니다.
자성을 보는 순간이라고 할 수
도 있겠죠.
그래서 자성을 보면 부처이고 자성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
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
냐?'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볼 수 있
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말입니다.
마구니
라는 얘깁니다.
부처는 내 본래 마음에 있는 것이
지 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

다.
절을 할 때도 내 본래 마음자리에 두고 절을 해
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 마음이
부처님자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합장을 할 때도
우주를 상대로 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
의 그런 행위가 우주를 상대로 하는 위대한 마음
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일이지만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習)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알
면서도 습을 못 떼는 겁니다.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니라.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느니라.
부처가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
를 떠나서는 성품을 얻을 수
없느니라.'

달마 대사께서는 성품을
부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
습니다.
이 '본래 마음'이라
했을 때 여기서 '본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쓰는
마음도 마음은 마음이기 때
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번
뇌입니다.
지금 보고 듣고 분
별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라
고 하는 것이고 진짜 마음 자
리는 이름을 떠난 자리로서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으며

로 그 자리를 이룸하여 '부처'라고 표현을 하는 겁
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정진 하
시면 바로 염(業)도 맑아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랄 때도 똑바로 자라는 나무는 드물니
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자랍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느 쪽으로 넘어질까요?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마음을 두면 언젠가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런
얘깁니다.
전생의 습이 금생에 이어진다고 말을 했
듯이, 여러분이 금생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
진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진리의 눈을 금방 뜰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성품
자리에 마음을 두고 꾸준히 정진하시다 보면 언젠
가 눈을 뜨게 됩니다.

깨닫는 데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봐
야 물맛도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의 세계도 직접 깨
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과거로부
터 육체 위주로 살아온 습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
도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몸뚱어리는 아
무리 잘 먹고 잘 입혀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애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
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 밖에 불성이 따
로 없다'는 말씀을 눈을 뜨면 마음은 안과 밖이 없
습니다.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반야바라밀 수행으로 성품을 깨달으시기를 지극
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
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기동 기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100% 원불보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면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
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협장 -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기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